

4차 음식혁명

인공지능 시대 먹거리 산업 변화 및 사례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이 거세다. 패션과 AI, 건설과 AI, 스포츠와 AI 등, 마치 예전처럼 하나의 고유명사 인양 AI와 산업의 결합은 4차 산업의 시류에 안착해 있다. 이에 발맞춰 음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음식ISC)는 이번 웹진을 통해 AI와 먹거리의 스마트한 만남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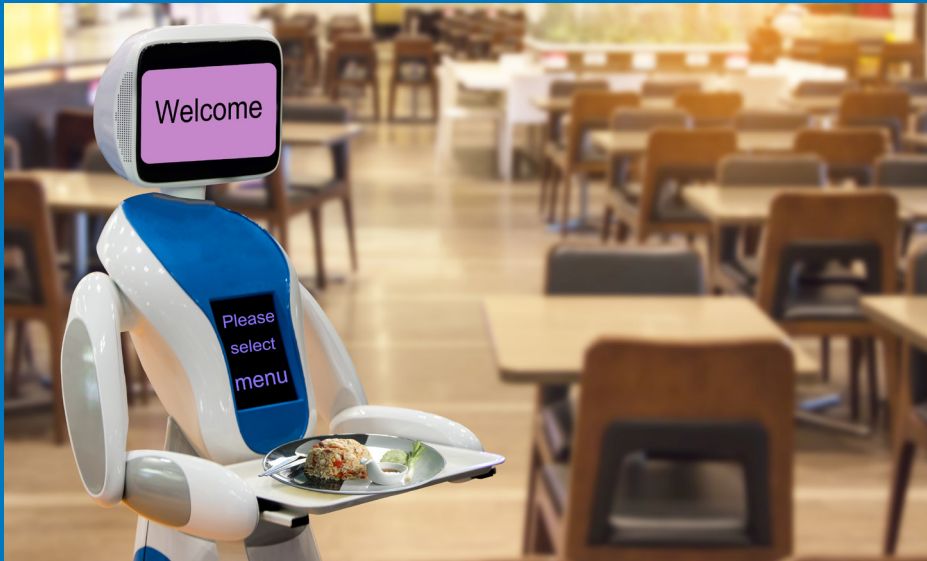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음식배달은 드론으로



드론은 음식 배달의 변혁을 요구한다. 특히 IT강국인 대한민국은 도심 내 통신망이 유기적으로 갖춰져 있어 드론 배달에 탁월하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배달'의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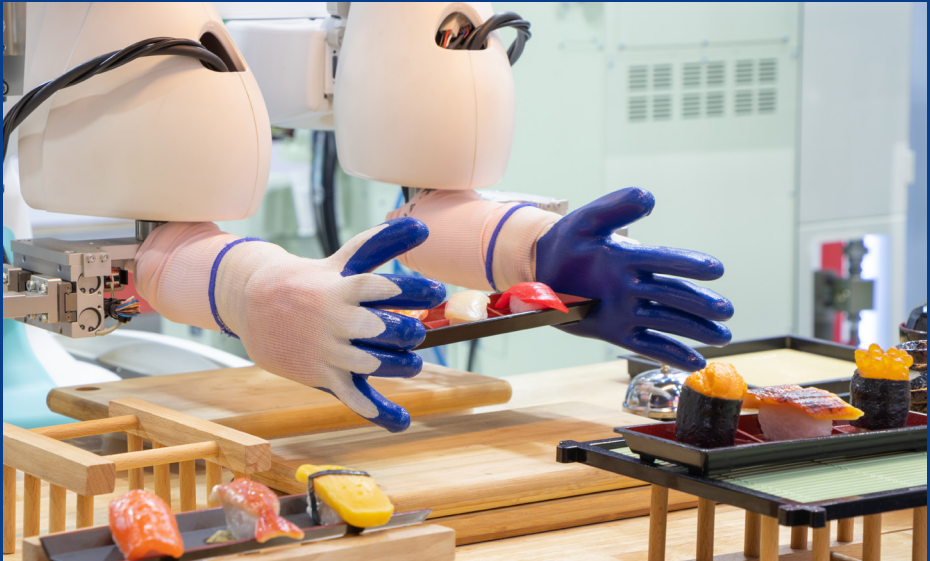
서빙로봇

음식을 나르고, 잔심부름을 도맡아한다. 더 쉽고 편한 매장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서빙로봇을 비대면의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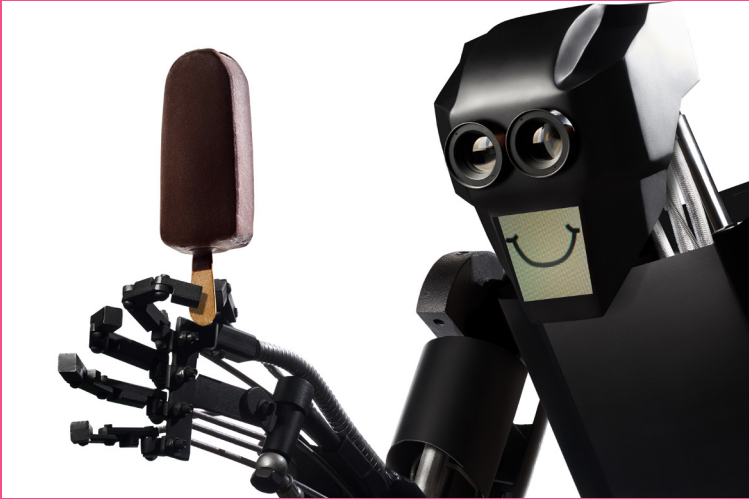
바리스타 로봇

로봇이 추출하는 커피의 맛은 어떨까. 스크린 터치로 주문하고 자동 문을 통해 컵을 들어 커피를 음미한다. 바리스타 로봇의 손으로 태워진 정형화되고 정직한 맛의 커피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



로봇셰프

수천 가지에 이르는 레시피를 내장한 요리 로봇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한다. ‘로봇 셰프’라는 말이 신조어가 아닌 고유명사로 자리매김 할 날이 머지않았다.



이처럼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초고도화 기술이 합쳐진 ‘먹거리 로봇시장’이 4차 산업과 코로나19시대의 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확산 세 역시 거세다. 음식 로봇은 (인력절감에 따른)사업주의 경제성 제고와 함께 균일한 맛을 내기 힘든 사람의 손맛을 정형화된 데이터에 삽입, 이로써 먹거리 로봇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맛과 같은 향을 내는 요식산업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